

# “2010년엔 세계 최고 대학될 터”

## 박찬모 포항공대 신임총장

대담 \_ 정진의 편집위원

셋째는 시대의 흐름에 알맞은 개혁입니다. 포항공대는 2010년까지 연구 성과, 기술, 제품에서 최소한 10개는 세계 최고를 성취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와 학생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교수평가제도의 이원화 혹은 다원화라든가 선택과 집중으로 강점분야를 택해 학제간 연구를 활발히 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넷째는 세계화를 향한 노력입니다. 포항공대가 지향하는 것은 세계적인 일류대학입니다. 즉 연구결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국제적 수준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 교류를 더 증진시키고 국제적인 학술행사를 원활히 치를 수 있는 국제관 건립을 추진하려 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석학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재원의 확보입니다. 그동안 포스코의 많은 재정적 지원이 있었으나 민영화된 지금은 명분이 뚜렷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포스코나 다른 산업체 연구과제유치에 노력하는 한편 국가의 대형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최근 중앙일보는 전국대학 종합 평가에서 포항공대를 1위에 선정하였습니다. 1위에 오르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포항공대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중앙일보가 시행한 전국대학종합평가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금년에 새로 시작한 분야별 평가에서도 자연계, 이공계 1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교수님들의 연구실적과 교육여건 및 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수 당 해외 논문 개

**포항공대 총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학교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생각이신지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남은 생을 포항공대의 발전을 위해 다 바치려 합니다.

포항공대는 지난 1년 동안 총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어 오면서 학내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었고 위기의식이 팽배했었습니다. 이제는 밝은 내일을 향해 제2의 도약을 할 때라고 생각해 다섯 가지 방침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구성원간의 화합과 단합입니다. 교수, 직원, 학생간의 화합을 이룩하고 대학과 재단간의 공고한 신뢰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화합과 단합은 대화와 설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는 행정의 효율화입니다. 분권, 분산 경영방식을 도입하고 학과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보직자들에게 필요한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서로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① 방사광가속기 항공사진 ② 포항공대 항공사진 ③ 청암학술정보관

재수는 3.1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당 교육비도 4천400만원으로 2위인 학교의 두 배 가까이 되었습니다. 포항공대는 설립당시부터 연구중심 대학의 가치를 높이 들고 탁월한 교수를 유치하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왔으며 포항 가속기, 첨단 실험기기 등 연구 환경도 타대학에 비해 매우 좋았기 때문에 1위에 오르게 되었다고 봅니다.

**포항공대가 계속 1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1위 유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 주십시오**

“선두에 이르는 쉬워도 그것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포항공대는 국내정상은 물론 세계의 우수한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석학을 유치하고 포항 가속기를 활용한 새로운 연구분야를 개척하며 이번에 새로 개관한 생명공학 연구센터를 통해 많은 훌륭한 연구결과가 나오리라 기대됩니다. 또한 지난 4월에 개관한 디지털 도서관인 청암학술정보관도 커다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항공대는 평가에서 1위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기보다는 우리의 건학이념인 제적 수준의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기초과학과 공학분야에서 첨단 연구에 중점을 두며 산·

학·연협동을 통해 연구결과를 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포항공대 출신의 미래를 그려주십시오.**

포항공대는 소수정예를 지향하고 있어 졸업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구중심 대학으로 학부생보다는 대학원생이 더 많습니다. 학부생은 50% 정도가 대학원으로 진학하고 나머지는 취업을 하거나 군에 입대합니다. 석사학위취득자는 30% 내외가 박사과정으로 진학하며 나머지는 산업현장 등으로 갑니다. 간혹 외국으로 취업해 가거나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수도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마친 졸업생은 교육계, 연구계, 산업계에 가서 활약합니다. 포항공대가 원하는 것은 앞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과학기술계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지도자가 되는 인재를 양성·배출하는 것입니다.

이미 포항공대 졸업생 중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된 사람도 몇 명 있습니다.

**‘이공계 기피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포항공대 차원에서의 대책은 없을까요**

포항공대는 금년에도 학부생 수시모집에 4.1:1이라는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높은 경쟁률은 입학 정원이 적은 이유도 있겠지만 포항공대의 진가를 아는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7개 과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포항공대에 오셨을 때 “많은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갈 준비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학 고등학교를 설립한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근절하기 위한 과학기술계의 노력과 정부차원의 대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두뇌는 지녔지만, 현행 암기식 대학 입시위주 교육 탓으로 이공계 진학을 포기한 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포항공대에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우리 나라 현행 입시제도하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

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수시모집에서 과학기술 방면에 특출하고 창의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내신성적이 조금 미진하더라도 입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참여정부는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포항공대 차원의 참여계획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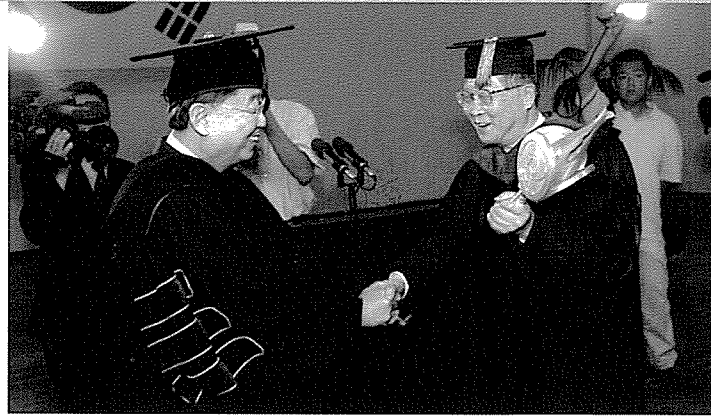
참여정부는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지방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개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포항공대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포항공대의 우수성은 이미 검증되었으므로 국가의 대형 과제 참여와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위해 산학협력단도 구축중입니다.

### 산업계에서는 이공계 대학 졸업자들의 현장 활용에 많은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법은 없을까요

포항공대 출신은 산업계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인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체에 따라 취직 한 후 현장 교육(on the job training)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쉽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이공계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강의위주가 되어 실습이 적고 교과과정개발에 산업체 관여가 거의 없으며 현장실습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외국의 많은 대학같이 이공계 학생들은 방학을 이용하거나 1학기 동안 공장실습 경험을 쌓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포항공대생은 재학시절 많은 실험 실습을 하며 학부 때부터 고학년이 되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총장님은 IT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IT의 미래는 어디까지 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IT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네트워크, 특히 인터넷 이동통신, 가전제품 등 여러 분야를 총망라합니다. 그리고 요즘 각광받는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등도 IT없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이동전화기 등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세계 시장점유율이 크지만 소프트웨어 분야는 시장점유율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IT의 미래는



아직까지는 밝다고 봅니다.

### 우리 나라 IT기술과 산업이 세계 제일을 고수하기 위한 처방이 있다면 3가지만 제시해 주십시오.

우리 나라가 IT기술이나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제일을 고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나라의 IT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IT인력 특히 소프트웨어기술인력을 많이 양성하고 둘째, IT산업체의 M&A를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합니다. 셋째로는 IT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증진으로 남한의 하드웨어와 북한의 소프트웨어를 결합시키고 북한의 기초 기술과 남한의 상품화 기술을 접목시키며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여 국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해 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 과학기술인 또는 후학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나라에서 과학기술인이 우대를 못 받는 것은 사회의 잘못된 풍조도 있지만 과학기술인들의 반성도 필요합니다. 중국은 최고지도자를 위시해서 지도층의 70% 이상이 과학기술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여기에서 많이 배울 점이 있다고 봅니다.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면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됩니다. 과학기술의 창달과 발전을 위해 우리 다함께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 기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그동안 우리 나라 과학기술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오셨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과정에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과학기술인의 복지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힘써 주셔서 지역사회 발전에도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㉞